

트럼프, 러 푸틴과 핵무기 군축 협상 가능성

러시아 제재 해제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듯 “獨 주도 유럽 난민정책은 대재앙적 실수” 비난

미국의 핵능력 증강 염포를 낳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핵무기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가 가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버락 오바마 정부)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다. 우리가 러시아와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며 핵군축 협상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례로 핵무기는 꽤 줄어들어야 하고, 매우 많이 감소해야 한다”며 러시아와의 협상 테이블에 핵무기 군축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핵무기 문제가 양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당선인도 트위터에서 미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확장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커진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핵무기 군축 협상을 대가로 러시아 제재를 끝내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러시아 제재 해체에 방침을 짰어 설명했다.

이민정책 강경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의 난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독일이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를 수용한 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

재앙적 실수”라고 비난했다. 유럽연합(EU)이 “독일을 위한 수단”이 됐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며 강력한 이민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슬람 테러리즘 연관 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에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유럽인들도 여행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영국 국민이 선택한 브

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위대한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영국 파운드와 약세가 영국 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의 양자 무역협상을 지지했다.

그는 “우리는 (협상) 작업이 빠르고 제대로 이뤄지도록 매우 열심히 할 것”이라며 취임 직후 데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미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메이 총리한테서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2차 세계대전 연설물 복사본 선물과 함께 신뢰와 우의를 강조한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중동 정책을 맡는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임명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구시대 유물이며 이란 핵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을 인터뷰한 사람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승리를 이끌었던 마이클 고브 전 법무장관이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더타임스 기자 출신인 고브 전 장관은 브렉시트 진영의 ‘배신자’ 논란 속에 지난해 퇴임한 후 칼럼니스트로 더타임스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시위 벌이는 트럼프 반대자들

지는 못하겠지만 100만 명 가까이가 시내를 가득 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반대자들이 플래카

미국 치안 당국과 워싱턴DC 시(市) 정부 등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인파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기록했던 약 180만 명까지 이르

／연합뉴스

‘2국가 해법’ 지지 이-팔 평화회의 파리서 열려 당사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불참 실효성 의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양국 존재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제평화회의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프랑스 주도의 이번 회의가 “쓸데없다”라며 불참하고 팔레스타인 대표단도 파리에 오지 않아 이번 국제회의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등은 이날 파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 외무장관과 고위급 외교관리가 참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참가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직접 대화와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해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방안인 ‘2국가 해법’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평화회의는 미국이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결의안 통과를 허용한 이후 열려 주목을 받았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국가 해법이 평화와 안전으로 향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국제사회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현 미국 행정부가 유지해 온 ‘2국가 해법’ 대신 이스라엘 중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중 北 최희철 외무성 부상, 행적 안 드러나

주중 동남아 대사들 만난 듯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한 최희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관심을 끌고 있다.

차관급의 북한 고위관리가 방중하면 여러 채널을 통한 북중 접촉이 이뤄지는데 비해 최 부상의 동선이 나올 이상 드러나지 않아서다.

현지소식통들은 16일 최부상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 측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베이징(北京)에서 동남아 일부 국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대외연락부 홈페이지에 최 부상과의 면담 소식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상은 중국 이외에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리들과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최 부상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주중 대사들과 만난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조차 북한에 거리를 두려 하는 상황에서, 최 부상이 베이징 주재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핵심협과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들은 최 부상이 접견한 동남아 국가들의 주중대사들에게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완화를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남조 황금시대 연 양무제

양무제 소연(蕭衍, 464~549)은 남란릉 출신으로 자는 숙달이다. 남제를 멸망시키고 양나라를 건국했다. 남조 시대 가장 뛰어난 치적을 남겼으나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해 후경의 난으로 몰락했다.

그는 남제에서 출사해 웅주자사가 되어 군사 요충지인 양양을 지켰다. 그는 잔인하고 포악하며 우둔한 척 하지만 정치적 술수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 남제 말년 조정이 혼란스러움을 타 권력을 장악했다. 동훈후가 폭정을 일삼자 쿠데타를 일으켰다. 501년 수도 건강을 장악하고 동훈후의 동생 소보용을 마지막 황제인 화제로 옹립했다. 다음해 스스로 제위에 올랐다.

그는 남제의 경릉왕 소자랑 휘하에 있으면서 지식인 집단과 지적 교류를

니라 현학·문무·사학에 뛰어났고 유·불·도교를 두루 아우른 육조 사대부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주역강소’ ‘효경강소’ ‘공자정언’ 등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지금은 양무제어제집이 남아 있다. 그는 공포정치를 극력 피하였다. 왕족과 귀족에 대한 숙청도 최소한에 그쳤다. 학문과 불교에 심취한 그의 인간성 덕분이었다. 유송 남제와는 달리 명문 귀족 대신에 심악 범문 같은 이류귀족을 등용해 문벌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치세 전기에는 법가식 통치에 따라 공포정치의 어두운 면이 있었다. 한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치면 전가족이 판결을 받고 고역살이를 하는 법령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는 백성이 5천명이 넘어 감옥이 죄수들로 꽉 찼다고 한다. 그러나 치세 후반에는 불교에 심취해 온정적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다.

불교에 심취해 후경의 난으로 몰락

계속해왔다. 법문과 심약 등 문인 귀족과 교류하여 팔우(八友)로 불리웠다. 집권하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내정개혁에 착수했다. 예제와 법제를 정비해 흐트러진 귀족 신분질서를 새롭게 확립했다. 지방군단의 재원을 통제해 군 지배권을 공공화 하였다. 유송과 남제의 군사정권적 성격을 순화시켜 문이 무를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 즉위 초 수도에 국립대학을 세웠다. 귀족 자제들이 입학하는 국자학과 함께 오경(五經)을 배우는 학교인 오관을 설립해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리로 채용했다. 황태자 소통이 중심이 되어 당시까지 뛰어난 시문을 모은 시문집인 문선(文選)을 편찬했다. 이로 인해 문화가 번성하는 황금시대가 시작되었다. 유신은 ‘애강남부’에서 “50년 동안 강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태평의 시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도 건강은 동서남북이 각 40리고 인구가 100만명으로 전국 제일의 도시였다.

양무제 50년은 분명 태평의 시대였다. 송·제·양·진 4왕조 동안 23명의 천자가 제위했고 시역과 찬탈이 되풀이 되는 혼란의 시대에 일종의 예외였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다. 유학뿐 아니라 현학·문무·사학에 뛰어났고 유·불·도교를 두루 아우른 육조 사대부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주역강소’ ‘효경강소’ ‘공자정언’ 등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지금은 양무제어제집이 남아 있다. 그는 공포정치를 극력 피하였다. 왕족과 귀족에 대한 숙청도 최소한에 그쳤다. 학문과 불교에 심취한 그의 인간성 덕분이었다. 유송 남제와는 달리 명문 귀족 대신에 심악 범문 같은 이류귀족을 등용해 문벌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치에 실증을 느끼고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다. 몇 번이나 사신(捨身)을 했고 불사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 군신들이 1억만 전을 주고 되사오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최초의 사신은 66세때 일어났다. 스스로를 황제대보살이라고 칭하며 건강에만 500여개나 되는 불사를 건립했고 승려수가 1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나라 시인 두목은 강남춘이라는 시에서 “남조 480사 크고 작은 누대는 연우 속에 있구나”라고 묘사했다.

그의 몰락은 북위에서 투항한 장군 후경을 받아들인 사건에서 시작됐다. 547년 무제는 조간인 소연명으로 하여금 북위를 배신한 후경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 싸움에서 북위에 대패했다. 양국이 강화의 조건을 협상하자 자신이 북위로 소환될 수 있다고 우려한 후경은 건강을 치기로 결심했다. 포위된지 6개월만에 궁성이 함락되었다.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시체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개천이 가득 찼다고 한다. 86세의 무제는 궁전에 유배된채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 간증이다. 무제는 선명후암(先明後暗)의 대표적 황제다. 죽음 직전의 그에게 남겨진 위안은 그가 통치한 50년 화려한 세월의 장삼일 뿐이었다.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점 전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보양평수 16평)

010-7384-7800

상가매매 전문

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형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장)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이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매가 22억

④ 수가동 제일오피스텔 6층
(전병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매가 1억4천만 (용5천)

⑤ 상무지구 오피스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매매 6천9백만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월,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훌륭,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붙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2억4천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득처럼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첨단지구 식당임대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전문 앞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

* 평수 - 15평

◆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

★ 보 2천
월 6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평택 투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 120만평

▶ 110만평

브레인시티/평택항 개항/미군부대 이전

☆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

●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순수익 5억!!)

※1필지 200평 →
1억 투자시 가능

☎ 062-511-7800
010-6832-9700